



# 인구고령화가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사례

임태준 연구위원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Chen et al.(2017)은 중국 인구고령화가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음. 중국의 경우 소득불평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불평등의 연령 증가에 따른 악화정도는 소득불평등 정도에 비해 심하지 않았음. 또한 저자들은 금융시장의 발달로 개별 가계가 연령 증가에 따른 소득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장기 저축 및 소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연령 증가에 따른 소비불평등도 완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함

-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부족, 국민의료비 증가 등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데, 이는 더 이상 일부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개발도상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음
  - UN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5년 11억 명까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할 전망
  - 중국의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는 1960년 15%에서 2015년 36%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남미의 노년부양비는 14%에서 27%로 상승하였음
-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구고령화가 소득 및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충되는 두 시각이 존재함
  - 첫째, Deaton and Paxson(1994)은 대만, 중국, 영국, 미국 데이터에 근거하여 소득불평등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악화됨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는 인구 전체의 평균 연령을 증가시켜 소득불평등 악화를 야기함
    - Gruber and Wise(2001)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됨

에 따라 노년층에 배분되는 공적자원의 비율이 하락하였음을 시사함

- Razin et al.(2002)은 이로 인해 노년층 대상 공적 이전(social transfer)이 축소되어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주장함

● 둘째, Higgins and Williamson(2002)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기술을 습득한 계층에 유리한 보상체계(skill premium)에 주목하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기술숙련도 편차의 감소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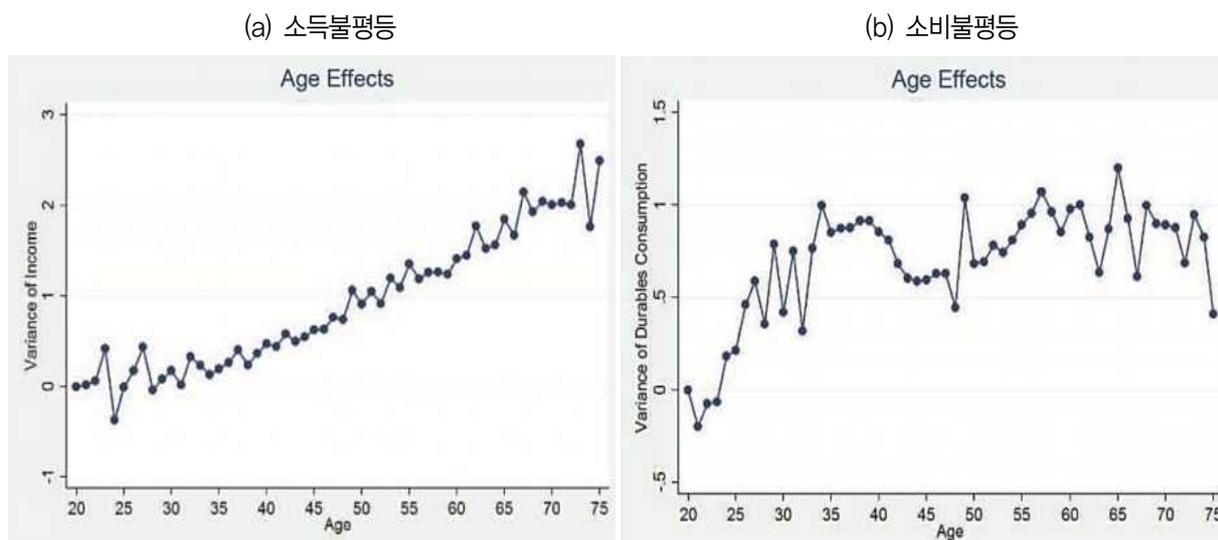
- Preston(1984)은 노년층 인구비율의 증가로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노년층 대상 공적 이전비(public transfer)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함

- Bussolo et al.(2015)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자본소득 대비 임금수준이 상승하며,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함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고령화 속도의 차이로 인구고령화를 다룬 학술연구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Chen et al.(2017)은 개발도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소득불평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됨(〈그림 1〉 (a) 참조)

〈그림 1〉 연령에 따른 소득 및 소비불평등 정도



- 둘째, 소비불평등은 청년층에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일부 구간이 존재할 뿐 35세 이후로는 특별히 악화되지 않음(〈그림 1〉 (b) 참조)
  - 단, Chen et al.(2017)에서 활용된 데이터(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는 비소비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셋째, 금융시장의 발달은 인구고령화가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소비불평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
  - 〈그림 1〉에서 확인되는 연령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 정도의 차이는 금융시장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음
  - 즉, 금융시장의 발달로 개별 가계는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장기 저축 및 소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령증가에 따른 소비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음

## 참고문헌



- Bussolo, M., J. Koettl, and E. Sinnott(2015), “Golden Aging: Prospects for Healthy, Active, and Prosperous Aging in Europe and Central Asia”, World Bank
- Chen, X., B. Huang, and S. Li(2017), “Population Aging and Inequality: Evidenc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BI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Deaton, A., and C. Paxson(1994), “Intertemporal Choice and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3), pp. 437~467
- Gruber, J., and D.A. Wise(2001),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olicies for an Aging Society”,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iggins, M., and J.G. Williamson(2002), “Explaining Inequality the World Round: Cohort Size, Kuznets Curves, and Openness”, *Southeast Asian Studies*, 40(3), pp. 268~302
- Preston, S.H.(1984), “Children and the Elderly: Divergent Paths for America’s Dependents”, *Demography*, 21(4), pp. 435~457
- Razin, A., E. Sadka, and P. Swagel(2002),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4), pp. 900~918